

광주지역 독감 비상...검출률 41.9% 전년대비 2.5배 급증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병원체 9종 분석 설 연휴 확산 우려 "기침예절·손씻기 위생관리 철저"

올해 광주지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검출률은 41.9%로 지난해 보다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주간(2024년 12월 3주-2025년 1

월 2주) 광주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내원한 감기 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원 인병원체 9종을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세포포화합 11.1%, 메타뉴

모 6.0% 순이다. 코로나19는 0.6%다. 병원체 9종은 인플루엔자, 리노, 호흡기세포포화합(RSV), 파라인플루엔자, 코로나, 메타뉴모, 아데노, 보카,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 중 독감 원인병원체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4주부터 매주 40%를 웃돌며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검출률 16.3%과 비교할 때 2.5배 높은 수치다.

또 기존 임상환자 중심의 감시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기반 감염병감시체계' 분석 결과에서도 생활하수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농도가 1월 1주차 대비 1월 2주차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쉽게 감염된다.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코로

내19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설 연휴 동안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높은 만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호흡기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종 시기에 맞춘 예방접종, 실내 환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과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

거나 기침·재채기 후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휴지나 옷소매로 입·코 가리고 기침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협력병원 기반 병원체 감시 체계를 운영해 원인병원체들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특히 임상감시체계를 보완하는 하수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15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지산학연협의체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시의원, 입주기업 대표 등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姜시장 "혼란을 기회로...새로운 광주 도약 힘 모아야"

지·산·학·연 신년인사회...민생경제 회복 협력 당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각계와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15일 지·산·학·연협의체 신년인사회에서 "지금의 혼란을 기회로 삼자"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지역 모두가 힘

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기업 60여곳,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연구·지원 기관 20여곳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혼란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광주 발전을 위한 전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지·산·학·연이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여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지·산·학·연은 인공지능과 미래차, 에너지라는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광주 미래산업의 구체적인 전

략을 짜달라"며 "지역의 산업 혁신과 기업의 성공, 더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 에 손을 맞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지·산·학·연협의체는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역 산업·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논의 등을 위해 광주지역 주요 기업, 연구·지원기관, 산업별 협의체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거버넌스 협의체다. /변은진기자

광주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 본격화

4만5천기 규모 제3봉안당 2027년까지 건립

광주시가 영락공원 내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화장 문화 정착과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를 반영해 영락

공원 3단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락공원 내 제3봉안당(연면적 6천㎡, 4만5천기), 자연장(1만4천㎡, 2만7천기), 봉안당(1천700㎡, 3천700기)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06억원(국비 81억원·시비 225억원)을 투입해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다. 제3봉안당은 2027년 준공 목표다. 이 중 자연장지는 올해 만장이 예상돼 영락공원 3단계 확충사업 외에 영락공원 개나리 묘역 인근에 3천500기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변은진기자

봉안당은 제례실 일부를 추모관으로 조성해 2천900기 확보 등 총 8만2천기를 신규 확충할 예정이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 영락공원 내 장사 시설이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남도, 우기 전 지방하천 공사 마무리

재해예방 특교세 70억 확보 나주 영산천 등 5곳 조기투입

전남도가 우기 전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대량화되면서 재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을 선정해 정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에 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이번엔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나주 영산천(19억원)·만봉천(19억원)·신광천(12억원), 보성 복내천(10억원), 담양 대덕천(10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투

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1월 중 해당 시·군에 교부해 우기철 이전까지 시급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공정 관리와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선 시급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며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 재난 대비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천148억원(69개 지구)을 편성,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3월께 조기지급

도, 내달 7일까지 접수...지역화폐 60만원

전남도는 15일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빠른 3월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양시원기자

다만, 농어업의 소득 연간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